

광양시, 저출생 극복 '생애복지플랫폼 3.0' 시동

맞춤형 복지·디지털 행정서비스 융합
복지 정책 400종→430종 대폭 확대
8천500만원 투입 'MY광양' 앱 강화
'민·관 연계형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



광양시가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한 생애 전 주기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어린이보육재단 아이들 모습.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와 첨단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융합한 '생애복지플랫폼 3.0'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생애복지플랫폼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복지 혜택을 빈틈없이 통합 지원하는 복지정책 체계다.

앞서 시는 1.0에서 2.0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공심야 달빛 어린이병원과 24시 열린어린이집 운영,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 수당 지급 등 파급력 있는 제각형 신규 정책을 대거 쏟아냈다. 이를 통해 당초 300종이던 복지정책을 400종까지 늘렸으며, 전

국 최초 통합행정플랫폼인 'MY광양' 앱을 출시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4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으며,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을

연이어 휩쓸며 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시는 이러한 성공 방정식을 든든한 발판 삼아 시민의 변화하는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생애복지플랫폼 3.0(2026년 5월~2027년 6월)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400종인 복지정책을 430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출산·양육·보육을 잇는 저출생 대응 정책부터 아동·청소년 맞춤형 학습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및 생활 안정 등 세대별 신규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전면 도입해 행정서비스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더불어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국비 보조금 등 총 8천500만원을 투입해 'MY광양' 앱을 강화한다. 맞춤형 정책 추천 AI 비서, 24시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온라인 신청 기능 서비스를 현행 108종에서 200종으로 2배 가까이 확충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행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윈스톱 통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사회복지관·자원봉사단체·기업 등과 손잡고 '민·관 연계형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밖에 복지안전협의체를 주축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긴급 맞춤형 후원을 연계해 단 한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생애복지플랫폼 3.0을 기점으로 복지·행정·디지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엮어내겠다"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여수시,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구축 청신호

해수부 주관...5년간 총 250억 투입
AI 기반 수명 예측·표준화 체계 구축

여수시가 친환경 전기선박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반인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확보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수행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극한의 해상 환경에 노출돼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해양배터리의 실

시간 운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연구개발·실증 프로젝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수명을 예측함으로써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표준화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50억원이 전격 투입되며, 시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우수 기업 12개사를 지역에 유치, 친환경 해양 신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는 ▲해양배터리 운영 데이터 표

준화 체계 구축 ▲AI 기반 상태 진단 및 수명 예측 기술 개발 ▲디지털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구현 ▲산업계·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 생태계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친환경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 드론·수중 로봇 등 다변화하는 해양 모빌리티 전반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의 첨단 해양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여수가 선도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양에너지 활용 기술을 완성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여수시가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나서게 됐다. <여수시 제공>

보성군, 지역상품권 모바일 결제 1천여곳 확대

내일부터 '착' 결제 시스템 무료 설치
결제 효율성 ↑·골목 상권 활력 기대

보성군이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시스템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관내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 1천85개소를 대상으로

'착(chak)' 앱 기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설치를 무료 지원한다.

착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코드나 QR로 간편하게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디지털 플랫폼이다.

소비자 편의 증대는 물론 가맹점의 결제·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침체된 골목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폐공사·군민

합동 '착 서포터즈'가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결제 시스템 설치와 맞춤형 사용 교육을 전담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까지 스마트폰 활용이 능숙한 군민 서포터즈 5명을 최종 선발하며,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3시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밀착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모바일 결제 도입은 보성사랑상품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라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역 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보성=임병연기자

곡성미래교육재단, 맞춤형 '교과 연계 문해교실' 운영

오는 12월까지 학년별 융합 워크북 도입

곡성군은 20일 '군미래교육재단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초등 교과 연계 문해교실'을 진행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문해교실은 국어 과목의 읽기·쓰기·말하기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도덕·음악·미술 등 다양한 교과를 융합해 아이들의 문해력을 길러주는 통합형 교육 시책이다.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학년별로 맞춤형 연계 도

서 3권씩을 엄선하고, 책 1권당 3회차 6교시 분량으로 구성된 전용 워크북을 새롭게 자체 개발했다.

수업은 '생각 열기-본 활동-마무리'의 단계별 구조로 짜여져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본인의 생각을 막힘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워크북은 일선 초등 교사의 자문을 거쳐 지역 아동·청소년 문해 강사와 교육 전문가가 공동으로 제작해 실제 현장의 수업 노하우를 충실히 담아낸 점이 눈길을 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실은 단순한 독서



를 넘어 교과 학습 이해와 표현 활동을 유기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탄탄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화순군, '기능성 콩'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韓농업기술진흥원·도곡농협 등 MOU

화순군이 기능성 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학·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도곡농협, 경북대학교, 지역 가공업체 등과 '기능성 콩 생산·가공·산업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사업의 핵심인 '홍심콩2호'는 일반 콩보다 고올레산(오메가9) 함량이 높아 심장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특화 품종이다.

도곡농협은 이를 바탕으로 100ha 규모 위탁형 공동 영농단지를 조성해 지역 업체에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생산 농가 조직화와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판로 확보에 힘쓰며, 경북



대는 연구·기술 자문을 받고, 농업기술진흥원은 우수 품종 보급과 산업화 지원에 협력한다.

지역 가공업체는 기능성 콩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나서며, 행정은 제반 지원과 정책 연계를 전담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동 영농을 기반으로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튼튼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담양군, 오는 7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 활동

전담 예찰반 편성·기본 수칙 준수 당부

담양군이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사과·배 과원을 대상으로 정기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

과수화상병은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죽는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현재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과 초기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온이 오르는 초여름 시기에는 병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현장 중심의 정밀한 예찰이 필수적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전담 예찰반을 편성해



관내 과원을 직접 방문하며 육안으로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화상병 예찰의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농가의 자율적인 예찰 참여를 독려하며, 농작업 전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한 위생 교육과 작업 도구 소독 등 필수 기본 수칙 준수도 철저히 안내한다.

박홍영 기술보급과장은 "꽃과 열, 가지 등이 검게 마르거나 끈적한 세균성 점액이 발생하는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보이면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이나 기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장흥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호응

전문 간호사 방문 건강·심리 지원

장흥군의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 지역 출산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건강간호사가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 확인, 양육 상담, 부모 교육 등 정서적 지지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신체·심리적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돕고 산모 유

울 등 고위험 가정에 대한 관리와 심리·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시책이다. 주요 서비스는 영유아 성장발달 확인, 모유수유 교육, 아기 돌보기 및 안전관리 등이다.

방문 서비스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나뉘고, 기본방문은 모든 임신부와 영아를 대상으로 2~3회 제공되며,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가정은 최소 5회 이상 지속방문을 지원한다. 관내 거주하는 임신부와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이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산전·영유아기는 건강의 시작점이자 성장과 발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기자